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나침반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발행인 : 유 진 형
편집인 : 박 상 호

2. 여가와 회복
4.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7.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 (온누리교회)
9.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2005년 8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81호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강원 도민 사랑 운동으로 꽃피워…

강원은 한반도의 중심이며 모든 한국인을 대표하는 고향이다. 한국의 정신인 선비정신이 잉태된 곳이며 이곳 태백의 정기를 받으며 한국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역사의 상처 속, 분단의 아픔에 허리가 잘려 나가며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초연 속에 이름 모르게 쓰러져 가며 눈물을 삼키던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땅이다. 그래서인지 평화를 유난히 사랑하면서도 버림받았던 강원도. 이젠 한국의 새로운 도약과 부활을 이루기 위해 고대의 개척기상과 자랑스런 관광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새롭게 일어나야할 축복의 땅이 되었다. 이 강원도가 새롭게 일어날 그날을 이루기 위해 일찍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기도로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백두대간 기도회가 그동안 이루어져 왔다.

이번에 새롭게 회장이 되신 춘천 등부교회 임신영 목사님은 많은 꿈과 강원도를 함한 사랑을 가지고, 18개 시 · 군의 모든 기독교연합기구가 함께 모여 명실공히 강원도민 사랑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셨다. 이를 통해 강원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애향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기독교가 솔선수범 앞장서지고 이를 진행 중에 계신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망하는 2014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도 도민 사랑운동의 차원에서 모든 도민의 연합의 힘을 함께 모으는데 기독교인이 밀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행사를 통해 직접 우리 손으로 강원도를 21세기 동북아의 관광문화 중심도시로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강원도의 미래를 놓고 뜨거운 기도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강원도엔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다. 부끄럽게도 강원은 애향심이 부족하고 정체성이 약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간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원을 사랑하는 각 분야의 뜻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 강원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면서 강원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그 중 강원도의 기독교연합회들은 이런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한 결과, 18개 시군이 연합회가 하나 되어 도의 숙원사업인 2014년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것이다.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범 도민운동' 전개를 위한 추진을 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참여운동을 전개하고자 강원도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와 2,000개 교회 및 35만 교인과 강원도민이 함께하는 Gang won Domin love 운동 결의대회를 2005년 8월 28일(주일) 오후 2시 호반체육관에서 갖고 도민사랑 운동본부를 출범하고자 한다.

Domin love 운동은 강원도민이 다함께 강원사랑이란 긍지를 살리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강원도의 정책인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자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도민의 결집과 참여라는 대외적 명분 하에 우선적으로 35만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범 도민의 참여로 극대화시키어 한국의 강원에서 세계의 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강원도민 사랑운동의 방향은 어디까지나 비정치적인 순수한 민간주도의 애향운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아울러 강원도민 사랑운동을 통해 도민의 긍지와 정체성을 살리는 도민화합과 참여에 힘쓰며 동북아의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다운 도민의 품격을 높이는 3대 생활문화 가꾸기 문화도민 운동을 전개하여 2014 평창동계 올림픽유치에 도민의 힘을 발휘하여 우리 모두 살기 좋은 강원을 가꾸자는 것이다.

강원도민 사랑운동은 강원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도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순수한 민간주도의 범 도민 운동으로 확산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모든 단체 활동을 존중하며 다양한 주제와 전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시민운동과 서로 연계하고, 화합과 협조 속에 공조하여 추진할 것이다.

강원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오승룡 목사



이달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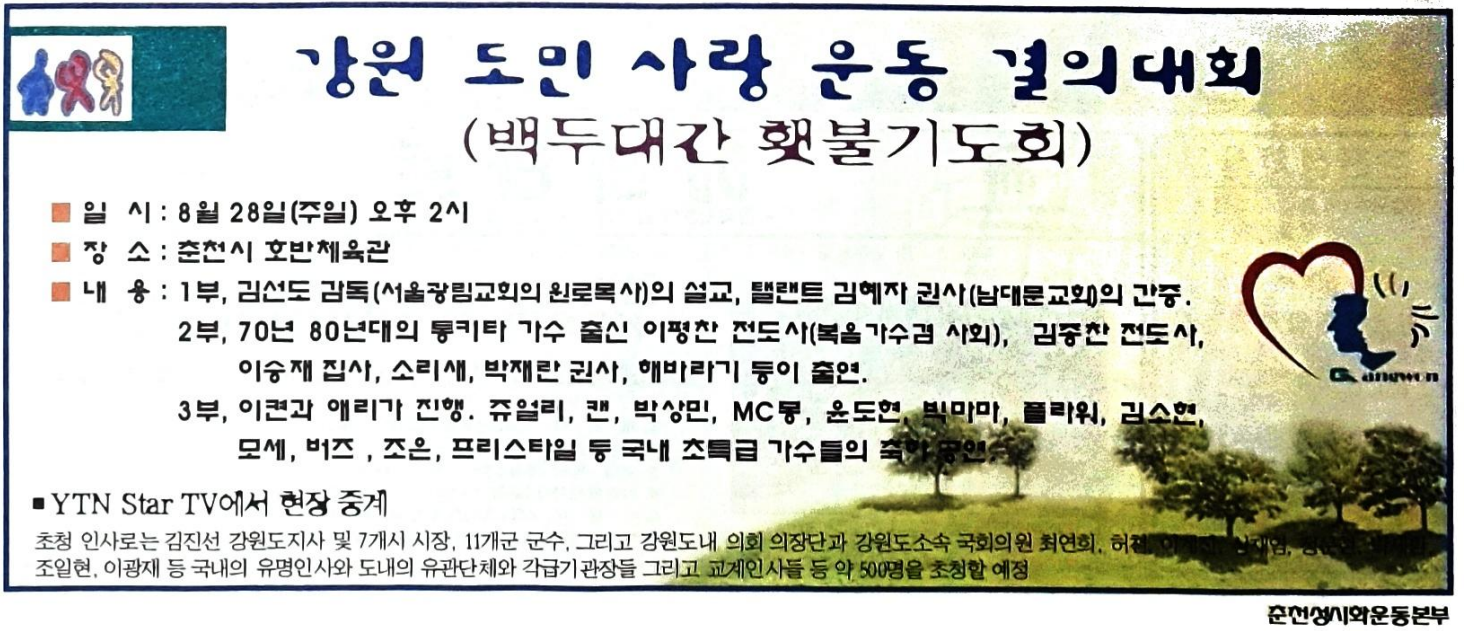
·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이번 강원기독교연합회에서는 8월 28일(주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강원도민사랑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강원도민 사랑운동이 확산되도록

· 개 교회와 선교단체의 수련회를 위해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수련회를 통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춘천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길, 또한 안전사고에 주의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해외로나가 단기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곳곳마다 풍성한 영적 열매들이 맺히도록

·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안기부 도청 x파일로 인해 이런 저런 많은 의혹 속에 바르지 못한 정치 행태로 설왕설래 방황하는 정치계에 바른 회개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 정직과 신뢰,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치계가 될 수 있도록

· 북한의 핵문제 해결
이번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을 통해 동남아의 탄압고와 같이 보이던 한반도가 핵문제와 인권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안정과 평안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 춘천의 레저중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비전 있는 도시 문화의 도시로서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자부심과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하며 삼시화가 시작된 이 도시가 영성 있고 거룩하며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여가와 회복

내가 교회를 개척하여 10년 가까이 될 때의 일이다. 나는 내 몸과 마음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나타나는 증거들은 그 아멜로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수고한 것만큼 차곡차곡 쌓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을 10여 년 동안 경험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는 여유는 없어지고 조급증은 나의 마음과 육체를 학대하며 어렵게 하였다

한 번은 아이의 운동회 날이라 아내와 함께 도시락을 준비하여 참여한 적이 있었다. 한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 내 마음이 이유 없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나의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교회에 가보아야겠다고 말했다. 결국 아이의 운동회를 빠져나와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다. 마음이 그나마 편안해졌다.

내 마음에 이러한 여유가 없어지면서 교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목회자의 탈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정작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다. 마음은 마음대로 피폐해지고, 육체는 육체대로 녹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해 연말에 결국 나는 이무런 의욕도 용기도 가질 수 없었다. 이런 상태로는 다음 해의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와 아내는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고, 안식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안식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재정적인 준비도, 사역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역자도 준비되지 못했다. 그러나 십여년 등안 등고동락한 교인들과 나의 상황을 나누었을 때 교인들은 고맙게도 함께 공감해 주었고 나의 계획에 협력해 주었다. 당초 반년등안 안식할 계획을 즐여서 두 달 정도로 기간을 정하고 안식할 계획을 세웠다. 가족이 선교지에서 몇 주를 보내고, 부부가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주의 종을 사랑하여 쉴 수 있도록 보내주었던 그 성도들의 사랑을 먹어서일까 두 달이라는 안식의 시간은 십여년 등안 쌓아 놓았던 피로감을 떨쳐버리고 제충전을 경험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 값진 것을 배웠다. 즉 쉬는 법을 배웠고, 마음과 몸을 회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삶의 리듬이 있어야 한다.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읽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중의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일을 끝마치시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의 생활방식, 다시 말해 하나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일을 마치신 후에는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지 않으셨다. 물론 우리처럼 휴일만을 기다리면서 "드디어 주말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으셨다. 내 자신이 리듬을 타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바쁘게 짜여진 일정표에 따라 열심히 일한 후에 주어지는 안식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에 나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일벌레처럼 열심히 일만하고 안식할 줄 모르는 것은 쉬는 것을 죄악시 하는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도 쉬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쉬기를 바란다. 오히려 쉬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임을 알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가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

가끔 주변에서 휴일이 돌아와도 어떻게 쓰고 싶은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들을 보게 된다. 내 주변에도 휴가를 얻어 놓고도 어떻게 하면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여가가 주어지면 집을 떠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간을 수면과 TV시청 등으로 소일하게 된다. 아니면 집을 떠나더라도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 수많은 인적들이 북새통을 이루는 해수욕장을 꼭 가야 피서를 다녀왔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휴가를 보내고 난다면 남는 것은 피로뿐일 것이다.

나는 이번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나도 즐길 수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생각해 보고, 여가를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워보기를 권한다. 함께 즐기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다음 몇 가지 여가를 보내는 형태들을 제안해 본다. 자신과 혹은 가족에게 적합한 계획을 세워보자.

1) 공동체와 함께 떠나는 여가

요즘은 교회별로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수련회를 실시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한 장소에서 아동부, 중고등부, 장년부 수련회를 개최하는 경우이다. 혹은 낮시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저녁시간에만 함께 모여 영성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공동체 기도(전도) 순례

역시 공동체가 함께 테마가 있는 여행을 하면서 중간 중간 함께 기도(전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재미와 의미가 함께 하는 여가방법이 될 수 있다.

3) 테마가 있는 가족여행

문화유적지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가를 보내는 것이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4)기타

그밖에 여가를 통해서 독서, 등반, 해외선교지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가를 계획하므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더 나아가서는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여가가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

여가를 계획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넣을 것을 권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 물론 그 시간이 아주 짧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숲 속을 거닐거나 해변을 거니는 한두 시간 일수도 있다. 아니면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처럼 더 긴 시간을 혼자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살아계셔서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새마음의 변화는 세상의 환경 변화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워지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이시다.

우리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게 되는 것이다. 능력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행로를 바꾸는 결정들은 보통 이러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바쁘다 바빠'를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다. 좀더 일찍 시작하고, 좀더 늦게까지 일을 한다. 교인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남들처럼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일 아침 늦장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주일학교, 성가대 연습, 주일예배, 선교회 모임 등 정신없이 주일을 보내고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온다. 너무 바쁘게만 살다보니 점점 하나님과의 소중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게 느껴진다. 정말 고요하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시간과 자리가 있는가?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재충전하며 회복할 시간이 있는가? 이렇게 고속운전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엔가 수명이 다된 기계처럼 멈추어 섯 될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번에 주어지는 여가가 쉬는 법을 배우고 마음과 몸과 관계가 회복되는 여가가 되도록 준비하고 계획하라.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 상 호 조 영 춘
최 영 조 최 상 도
정 재 호 이 영 규
김 춘 배 김 미 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 비 타 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문의처 ☎ 254-0009
한국 번개 건축 춘천 2005년
KBB2005 CHUNCHEON
2005년 사랑의 집짓기 한국 번개건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번개건축 춘천 2005년 행사 계획
1. 개 회 식 : 2005년 8월 1일(월) 오후 2시
2. 아침경건회 : 오전 8시 ~ 8시 20분
3. 문화 탐방 : 8월 3일(수)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4. 지원봉사자의 밤(장기자랑) : 8월 5일(금) 오후 7시~ 9시
5. 수 료 식 : 8월 6일(토) 오전 10시 30분
6. 참여 인원 : 계 259명(전반기 129명 / 후반기 130명)

인 물

영적지도자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풍부장로교회 담임목사이신 임신영 목사님(현 강원기독교연합회 회장)과의 인터뷰입니다.



조: 목사님, 반갑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요? 춘천지역의 복음화와 성시화운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사님의 신앙배경과 춘천에서 목회를 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천은 평양에서 북쪽으로 100여리쯤 떨어져 있는 비행장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선교사님(빌립보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 할아버지는 술도 안마시고 성실하신 마을 유지이셨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우리 할아버지를 전도하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믿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시면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기탄리에 기탄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을주민의 90%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예수마을이 된 것이지요. 아버님은 교직생활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설립한 사립초등학교인 덕림학교 교사로서 계시다가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신학교 졸업은 6.25 전쟁 중 부산에서 하셨고, 졸업 후 춘천성광교회 제1대 목회자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광교회는 아버님께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춘천으로 이주해온 장로교인들이 모여서 세운 장로교회였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따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춘천으로 이사 온 후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당시 아버님께서 장로교회의 분열문제로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졸업 후 장신 신대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영락교회에서 선교담당 부목사로 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사역을 참으로 재미있게 했어요. 6년 동안 단독선교사 12명을 파송할 수 있었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해외선교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등부교회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청빙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적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서 신문배달 등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공부했던 장면들이 기억나면서 춘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적 사명감과 함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정: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듯 합니다. 등부교회에서 사역해 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부임 초기부터 사회봉사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소년소녀가장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조사해보니까, 춘천에 40명 정도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4명의 가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해 한해 늘려서 지금은 15명의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교회에서는 경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노대학 초기에는 불신자에게만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반대도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성도들도 다 좋게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간접선교를 잘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전도보다도 섬김의 행동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어야 예수를 전하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다니는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저는 이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기학교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아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아기학교를 통해 변화되는 아기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홍천에 홍천은평교회를 개척 설립하여 부목사님을 담임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건물과 사례비를 일체 지원했습니다. 해외선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도 외국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이영하선교사님을 단독선교사로 파송하여 콜럼비아에 현지인 신학교인 후사신학교를 세우는데 힘썼습니다. 그동안의 사역이 열매를 맺어서 내년 초에 현지 졸업생 중 교수요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조: 2005년 강원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올해 중점사역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기독교연합회에는 강원도 18개 시,군 연합회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연합회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잘 연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기독교연합회의 가장 큰 행사는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매우 조심스러운 요소가 있어요. 강원도청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의 본질에서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임원진들은 이번에 하나님 앞에 한점 부끄럼 없는 최고 최선의 행사를 이루어 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2005년도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8월 28일(주일), 오후 2시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18개 시,군 연합회가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명실공히 강원도 전체 시군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지난 2주간 여름휴가를 미리 내어서 이 기간에 강원도 전역을 순회하였습니다. 18개 시,군 연합회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모든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흔쾌하게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을 주시면서 행사를 돕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엔 김선도 감독님과 또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초청하고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기획사와 논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행사는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행사의 헌금은 한 푼도 행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액을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그리고 북한 어린이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후배 목회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앞으로 목회가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세상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또한 인터넷상에는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것이 많으니까, 정말로 귀하고 좋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교회와 목회는 보수적일수록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잘못된 전통을 고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의 전통을 잘 가꾸고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면,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데 더욱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적인 설교를 능력 있게 할 수 있지요. 성도들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목회자에게 오는 것이 아님을 늘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조: 목사님, 끝으로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연합운동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많은 교단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들이 각기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크고 작고 다양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각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결집되기 어렵고, 또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며, 지역복음화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와 같은 모임체를 통해서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지역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이룰 큰 힘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춘천은 이런 실제적 연합운동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연합은 자기를 비우고 남을 높이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는 또한 큰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운동을 성시화운동본부를 통해 이루게 된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이런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과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연합운동을 하면 기독교가 존경받으며 춘천지역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일에 임원들이 앞장선다면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조 :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을 오늘 뵙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교회도 더욱 크게 부흥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시 : 2005년 7월 16일
진 행 : 조영춘
글정리 : 정재호
사 진 : 김미경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신촌교회 김용섭 목사

침례교회만 이름을 빙자해서 기독교 정통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한국 정통 교단들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세칭 구원파' 라 일컫는 신흥종파에는 여러 계열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1. 기독교복음침례회(서울교회-삼각지교회라고도 함. 권신찬, 유병언 계열), 2. 대한에수교침례회(서울중앙교회 이요한 계열), 3. 대한에수교침례회(한밭중앙교회 박옥수 계열), 4. 한국기독교독립침례회(서울중앙침례교회 서달석 계열)' 등 4개의 계열로 나뉘어진다(미국 L. A에 본부를 둔 윤방무 계열까지 하면 5개의 계열이 있으나 국내에 있는 4개의 계열만 소개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그 근황에 대해서 언급하여 기존 정통 교단에 있는 성도들이 이들의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Ⅰ. 구원파 소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다 하여 세칭 구원파로 불리는 구원파 계열의 기독교계 신흥종파는 한국 개신교에서 분파된 자생적인 신흥종파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상 외국에서 유입된 신흥종파이다. 한국의 구원파는 네덜란드 독립선교사 케이스 글라스(Kass Glas- 한국명 길기수)에게서 영향을 받은 고 권신찬과 1960년대 교단배경이 없는 외국의 독립 선교사들이 모여 함께 운영하였던 대구성경학교에 다닌 유병언에 의해서 1962년 경북 대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당시 학생으로는 유병언, 박옥수, 이종섭, 유강식, 심남섭, 김성준 등이 있다).

이들 선교사들은 당시 기성교회 안에는 복음이 없고 구원받은 목회자가 거의 없다는 시각을 갖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특히 딕욕은 기성교회를 반 복음적인 세력으로 보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신학공부를 하는 것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타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과 '께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에 덧붙여 '급박한 종말관'을 교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다. 세칭 구원파의 근원지인 기독교복음침례회가 표면에 부상하여 개신교 계에 처음 논란이 되었던 것은 1968년 10월 포항 중앙교회 사건이다. 구원파의 '깨달음 교리'를 일부 신도들에게 개인 집 안방에서 가르치고 있던 이 교회 강도사 소천섭이 추종 신도들을 데리고 당시 극동방송국의 권신찬이 주최하는 청취자 수련회에 참석하자 소속교단 노회에서 문제가 되고 확산되었다. 소천섭은 1969년 1월에 직무해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활동거점으로 하여 포항에 드나들면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포섭하고 집회를 가졌다. 소천섭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 포항과 울릉도 지역 다수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고,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히 울릉도 저동 제일교회는 오래된 조직 교회였으나 교인 전원이 소천섭을 추종하여 구원파에게 교회까지 넘어 갔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권신찬의 동역자이자 사위인 유병언이 1982년경 사업에 손을 대며 방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재산을 바쳐야 들림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자 온 교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말리게 되었다.

이에 이복칠(후일 이요한으로 개명)은 그 비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이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리며 반기를 들자 유병언 측은 이들과 다투다가 1983년 2월 13일 오전 11시 경찰 형사 기동대가 경비하는 가운데 유병언은 이복칠 측을 몰아냈고 이로써 이복칠은 대한에수교침례회로, 박옥수는 대한에수교복음침례회(후일 대한에수교침례회로 개칭)로 각각 분리됐다.

이들 구원파의 핵심교리는 약간의 차이성은 있으나 거의 비슷하기에 먼저 각 계열들의 창교와 활동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구원파에 속한 각 계열별 교단 및 활동상황.

1. 기독교복음침례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31-23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김성일(실질적 대표는 유병언 임)이다. 조직이나 운영체가 중앙 집권적이며 장로 집사 등 직분자가 없다. 교회 수가 전국에 100개 교회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40~50여 곳에 분포되어 있다. 교직자 및 교인 수는 3,000여명 정도이다.

1) 창교자와 창교과정

창교자 권신찬(1996년 사망)은 1923년 1월 경북 영덕군 출생. 해방 후 남산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1951년 11월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1962년 12월 21일 경북노회로부터 장로교 목사로서 다시 침례를 받고 교인들에게 재 침례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되어 목사면직을 받았다. 1966년 2월 인천에 있던 복음주의 방송국(현 극동방송국) 전도 과장에 올랐으나 1969년 대구에서 평신도 복음선교회를 만들고 방송국에서 은혜의 아침 시간을 통해 특유의 사상(장로교사상+위치만니의 사상)을 펴서 말썽이 되었고, 1974년 9월 교리 분제로 극동방송국을 떠나게 되었다.

1981년 12월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세워 총회장에 의사인 변우섭을 선출하여 정식 출범했다.

현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유병언은 1941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출생하여 일본에서 소학교를 마치고 대구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6개월 코스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권신찬과 칠성에배당을 차려 열심히 전도하던 중 권신찬의 외동딸과 결혼하였다. 1967년 서울시내 대학생 중심으로 '조이선교회'를 만들고 방송청취자를 결속하여 서소문에 독립교회를 시작하였다.

2) 변천과정

1983년 유병언이 신앙과 사업을 연계하여 헌금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자 이에 교역자로 있던 이복칠과 그의 추종자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이탈하였으나, 이후 권신찬과 유병언은 더욱 사업 확장에 주력하였고 막대한 사업자금을 교인들의 헌금과 사채로 충당하였다.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주식회사 오대양 식당 천장에 32명이 집단 변사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배후에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이 관련되어 진 것이 드러나 사회의 지탄과 함께 많은 이탈자들이 생겨났다. 이후 나름대로 교회를 유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활동상황

한 사람의 지도자 밑에 현재 자매라는 평신도가 있으며 지도자 밑에 통제위원회(사무국)가 있어 이 위원회의 훈령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설교도 교회에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회장이 순회를 하면서 설교를 한다. 일요일 11시에 애배가 있고 토요일에는 안성선교센터에서 전국의 신도가 모이는 모임이 있으며, 이곳에서 여름에는 하기수련회로 모인다. 정기 간행물로는 월간지인 「새길」이 발행되고 있다.

2. 대한에수교침례회 서울중앙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이요한(본명 이복칠)이다. 조직은 50개 조와 40개의 구역 그리고 9개의 교구로 편성돼 있으며 교회 수는 전국에 58개, 20개의 지역 선교회, 11개의 서울교회 내 선교회와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중국 등 해외에 19개의 지교회가 있다. 교직자 및 교인 수는 3만 여명 정도이다.

1) 창교자와 창교과정

창교자 이요한은 중학교 졸업 후 6·25동란 중 대구 임시신학교에서 권신찬에게서 잠시 사사 받은 것이 교육배경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원파 초창기인 1960년대 중반부터 목포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창시자인 권신찬과 합류하여 함께 활동하다 1971년 권신찬에게 목사안수를 받았다. 전남 목포에서 '평신도 복음전도회'라는 간판을 걸고 활동하며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시한부 종말론 등을 내세웠다.

1974년 말, 구원파는 부도 위기에 놓인 삼우트레이딩 사를 매입, 교인들의 헌금으로 기업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삼우트레이딩 사를 확장하는데 유병언이 주도했다. 이때 잦은 충돌로 1983년 교회 헌금을 사업에 전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유병언 파를 비판하면서 "교회와

5면에 계속 ▶



참사랑 내과의원
내과 · 소아과
▶ 비만 크리닉
▶ 노화방지 크리닉
▶ 갱년기 크리닉
※ 위 · 대장 내시경 전문의원
내과전문의 원장 정 형 만 ☎ 263-7560

갈비 · 냉면전문
송추가마골
소문난 갈비맛의 名家
033-264-0900
애막골 GS마트(구 LG마트) 뒤에 위치
[대형연회석 완비]
송추가마골 춘천점
창갈비 가마골갈비 생갈비 버섯생불고기 생꽃등심
생등심 돼지창갈비 꼬리곰탕 갈비탕 우거지탕
청국장 돌솥비빔밥 새싹비빔밥 물냉면(메밀평양냉면) 비빔냉면(함흥냉면)

4면에 이어 ▶

침례교회를 빙자한 구원파

사업은 분리돼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복음수호파'로 분립하여 용산 삼각지에서 서초구 방배동 239-1 삼원빌딩 4층에 '대한예수교침례회'를 설립했다.

2) 변천과정

1995년 경기도 안양의 인덕원에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며, 1997년경에 이요한 파에 속해있던 12개 교회가 이진배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 그리스도 복음교회로 분리돼 나갔다.

3) 활동상황

신도들에게 천재이변, 이상기후, 지진, 전쟁 등의 성경 사례를 들어 급박한 종말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교리를 주장할 때는 언제나 영적인 해석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일정한 예배 형식이 없고 집회식으로 1시간 30분 정도 성서를 공부한다. 저녁에는 예배 대신 교제라는 것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 교육도 받고 대화도 나눈다. 일년에 4번씩 사경회와 같은 강연회가 있으며, 일년에 1번씩 수양회를 개최하는데 수양회는 서울중앙교회가 지은 공주에 위치한 갈릴리 수양관에서 행해지고, 지역별로 4그룹으로 나누어 수양회를 갖는다. 교리전파를 위해 '성경 강연회'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기성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의식과 십일조와 기타 연보들, 그리고 기도생활과 예배 행위까지도 율법적이라 도외시한다. 간행물로는 월간지인 「생명의 빛」이 발행되고 있으며 출판사인 진리의 맡씀 출판사와 영생의 말씀사를 운영하고 있다.

3. 대한예수교침례회 한밭중앙교회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등 16-39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박옥수이다. 교회 수는 전국에 200여개, 북미, 중 · 남미, 유립 등 해외에 50여 개의 지 교회가 있으며 교직자 및 교인 수는 2만 여명 정도이다.

1) 창교자와 창교과정

박옥수는 경북 선산군에서 1944년 6월 출생하여 중학교 3년 중퇴, 네덜란드 길기수 선교사의 금오산 집회에서 크게 감화를 받고, 1962년 19세 때 길기수의 제자가 되어 해외선교사훈련 중에 군에 입대하였다. 1968년 6월 전역 후, 신림동 어린이 전막집회에 참석한 후에 김천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믿음의 방패 선교회'의 딕욕 선교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후 20년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전파하며 대전 한밭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2) 변천과정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권신찬과 유병언의 족벌 교권주의와 사업체에 교인들의 헌금이 투입되는데 대해서 비난하는 세력에 가담한 박옥수도 갈라져 나와 '예수교복음침례회'라는 간판으로 서울 성동구 구의동에 자리 잡고 전국적으로 지 교회를 설립해 나갔다. 그러나, 80년대 말 대전으로 본부교회를 옮기고 교단 명을 '대한예수교침례회'로 개칭하고 '기쁜소식선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섰다.

3) 활동상황

'기쁜소식'이라는 정기 간행물이 있지만 기성교단의 출판사나 방송, 언론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TV광고와 함께 매년 대형 실내 체육관을 빌려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하여 세를 과시한다.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여 2000년 2월 한밭중앙교회의 일요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다.

4. 한국기독교독립침례회 서울중앙침례교회

경기도 광명시 철산 2동 215-5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자는 서달석이다. 교회 수는 국내 8개, 미국, 브라질, 에콰도르 등 해외에 5곳의 지 교회가 있으며 교직자 및 교인 수는 1,000여명 정도이다.

1) 창교자와 창교과정

서달석은 서울신학교와 고려신학교 대학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을 비롯해 해외의 여러 신학교(침례교)를 졸업하였다(D. Min., Th. D.). 서울중앙침례교회는 1979년에 설립되었다.

2) 변천과정

서울중앙침례교회는 광명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 일원, 청주, 대전, 전주,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교회를 개척 중이며, 해외선교 사역으로 미국, 브라질, 동남아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태국, 중국 등의 선교와 북한 선교를 실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3) 활동상황

사역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사우스 타코다 소재, 그레이트 플레인즈 벱티스트 성서대학(Great Plains Baptist College Divinity School) 한국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월간 「바이올뉴스」를 발행하여 국내외에 배포하고 있으며 오메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오메가 타조 농장을 광명시 철산 2동 215-5에 운영하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57년 전 제헌국회 개원식 기도문 전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등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급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15 광복절을 맞아 57년 전 제헌국회 개원식 기도문을 통해 다시 한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행하신 역사에 감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남북통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 속히 남북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남북통일을 주실것이다. [편집부]



"교회 성장을 위한 부흥성회"

- 일 시 : 2005년 9월 4일(주일) 오후 7시30분
- 장 소 : 춘천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찬, 공지천 골프연습장 뒤)
- 강 사 : 유 만 석 목사(수원명성교회 시무)
- 주 최 : 강원노회 춘천시찰
- 문 의 : 최승호 목사(춘천은평교회 010-3191-8750)



정국성 목사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쉼터 양로원



의암기도 원전경



예배당



양로원



휴식공간

예배 안내

- 주간 집회
  매주 : 월~토요일 까지
  시간 : 새벽 6시, 낮11시, 저녁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8시
- 금요 철야집회 - 금요일 밤10시부터

쉼터양로원 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풍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사정상 가족이 모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말기암환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 :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의암댐발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 : (033)262-7923~4, 262-5694, 010-6388-7929

선 교

아르헨티나에서 온 선교편지

권오묵, 이설희 선교사

남미의 유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2년간 언어공부, 6년간 교회개척 사역을 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 아르헨티나 사람들과 현지 교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년과 현재 현지인 목회자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제자훈련 사역은 매년마다 30여명의 목사님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 훈련합니다. 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하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두 팀, 우루구아이 몬떼비데오에서 한 팀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3일 동안 본 훈련원에 들어와 합숙하며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집중 훈련을 합니다.

훈련 내용은 주로 '귀납법적 성경공부'와 '강해 설교 작성훈련'입니다. 매달 각자 집에서 성경 한 권(모두 등일한 책을 등일한 방법으로)을 공부하고 훈련원에 들어와 각 장의 공부한 내용과 작성한 설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예배 때 강해 설교의 시범을 보여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게 합니다. 6개월은 본문 분석과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강해 설교 골격을 만드는 훈련을 하며 나머지 3개월은 완성된 설교를 가지고 발표합니다. 첫 3개월은 옛 설교 골격을 새롭게 바꾸는 시간, 다음 3개월은 새로운 강해 설교 모델의 골격을 잡는 훈련, 마지막 3개월은 전달훈련을 주로 합니다.



처음에는 요절을 찾지 못하고 문단 나누기도 못하던 목사님들이 훈련이 끝날 때가 되면 설교의 체계가 잡히고, 때로는 저를 울리는 본문 중심의 감동적인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훈련을 마친 목사님들이 계속적인 목회적 돌봄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부터 매달 하루 졸업생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또 분기마다 성경 한 권을 공부하는 '성경공부 오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이곳 교포교회 목사님들과 북미주쪽 목사님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년에 한 번 강해 설교의 권위자들을 모셔서 강해 설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역은 '제자훈련'입니다. 평신도 신학과 제자훈련의 기초이론을 가르치고, 제가 만든 제자훈련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마칠 때는 각자 자기 교회 제자훈련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제자훈련 교재들은 첫째 개인 양육 카드인 「그리스도와 다섯 빌자국」, 소그룹 기초 훈련용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 소그룹 고급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6년 동안 교회개척 사역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상황에 맞는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책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사도적 로마 카톨릭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라는 질문에 화를 내며 "당신, 내 얼굴이 짐승으로 보입니까?"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아니면 아르헨티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며 지옥을 향하여 달음질하는 이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대부분이 오순절 교회인 아르헨티나 교회는 철저히 예배 중심입니다. 교회교육과 제자훈련은 아직 너무나 미비한 상태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아르헨티나 목사님들께 '잠자는 거대한 거인 평신도'를 깨워 저들과 함께 사역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 외에도 셀 모임과 영적전투, 내적치유 등 목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으며 매년 훈련받는 목사님들과 단기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은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훈련, 개인 상담과 목회 상담입니다. 따라서 매 주말은 훈련받는 목사님들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리더 훈련도 하면서 목회자 가족과 깊은 대화도 나눕니다.

2년간의 목회자 제자훈련을 되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더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이분들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훈련원이 알려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기 원하지만 제자훈련 사역의 특성상 많은 분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30명 정도 훈련하고 있는데 이 숫자도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 훈련과 제자훈련사역에 관심 있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미는 추수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미 선교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 사역이 주 사역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어려움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는 돈을 받지 않고 선교비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자훈련 하는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범을 통해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매달 삼일을 합숙하는데 돈을 받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역의 꿈은 20년 후 저희가 은퇴할 때 아르헨티나 교회의 강단의 변화와 건강하게 자란 아르헨티나 교회가 아시아의 중국과 함께 세계선교의 차기 주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유럽인의 후손인 이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유럽을 회복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봅니다.

거대한 대륙, 가능성의 땅 남미와 아르헨티나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글 권오묵 선교사]



장뇌삼과 각종 한약재를 첨가한! 웰빙 삼계탕!
웰빙 삼계탕 장 삼 원
귀한 분을 모신다면 장삼원으로 오십시오!
건강을 생각한 혼(魂)이 담긴 삼계탕,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 메 뉴
장뇌삼 삼계탕 · 한방 삼계탕 · 닭도리탕 · 한방백숙
※대형주차시설 완비
※각종모임을 위한 단체 연회석 완비
춘천시 후평동 시내버스 종점에서 소양댐방향 500m지점
예약문의 (033)254-9191 · 9199

정통중국요리 전문점
자 스 민
• 정식코스 요리
• 각종모임, 피로연
• 대형연회석 완비
• 돌, 회갑, 칠순(150석)
춘천시 퇴계동 11토지내 일성ⓐ입구
(춘천대한스포렉스 맞은편)
예약문의 : (033) 241-5453
244-5453
www.zasmine.com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름 받은 교회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온누리교회(김창환 목사)편입니다

춘천 온누리교회는 1990년 5월, 김창환 목사를 비롯한 청소년 등 12명의 젊은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제자훈련, 사랑실천, 복음전파의 비전을 품고 춘천 후평동 주공3단지 아파트 근처에 설립한 아름다운 교회이다. 그 설립과 성장의 아름다운 뒷이야기들을 지면을 통해 들어보자.

교회의 시작

온누리교회는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았다. 15년 전 상가 2층 50평을 임대하여 불과 10여명으로 시작하였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 지금은 예배실 건물 외에 3개의 교육관을 따로 갖추고, 500여명의 형제자매들이 60여 개의 선교단체와 선교사들, 기관들을 후원하는 중형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성장의 중심에는 제직들의 수고와 아울러 15년을 한결같이 섬겨온 김창환 목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 목사는 비교적 늦게 주님을 만났다. 스무 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김 목사는 은사이셨던 전상기 목사(당시 화천교회 담임)의 '당신은 왜 사는가?'하는 질문에 감동, 그분으로부터 복음과 목회, 선교의 비전을 배우게 된다. 서울과 회천 등 14년을 부교역자로 섬겨오던 김 목사는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개척에 대한 강한 인도를 받게 된다. 춘천에 내려와 개척의 장소를 살펴보던 중 후평동 주공3단지 상가건물에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그 건물은 춘천불교연합회 회장의 소유였다. 소유주의 완강한 반대로 계약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후 뜻밖에도 소유주가 세 벅갑이 찾아와 오히려 계약을 종용하게 된다. 소유주의 꿈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타나 그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게 하라는 지시를 듣고 두려움 속에서 임대를 허락하게 된 것이었다.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느끼는 대목이다.



온누리교회와 김창환 목사는 교회 설립 초기부터 몇 가지 중요한 고민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다. 첫째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었고, 둘째는 교회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셋째는 사역의 방법론에 관한 고민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마5:13,14)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며, 성도들의 성품훈련, 소그룹운동과 세계선교에 힘쓰게 되었다.

제자훈련과 영성훈련



온누리교회는 철저한 제자도에 입각한 제자훈련을 강조한다. 새 가족이 입교하면 환영회와 함께 김 목사가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 속엔 사랑의 인사말과 함께 교회의 비전, 철학, 신앙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 후에 새 가족들은 일대일 비나바 사역자들과 연결되며, 4-5개월의 양육프로그램을 거쳐 더 깊은 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자훈련의 경우 강원기독학생회(IVF) 대표간사로 섬겨 오다 최근 교회의 전임사역에 합류한 엄기홍 목사의 인도를 제외하곤 줄곧 김 목사의 몫이었다. 현재 8기가 진행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적 차원의 훈련이 아니라 실제적 헌신중심의 훈련이 되도록 진행된다. 7기의 경우 4년 만에 수료할 정도로 깊이와 훈련의 강도가 있다.

조기 김 목사는 한 주일에 최고 13개의 소그룹을 인도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 하지만 사역이 마라톤 사역임을 깨달은 김 목사는 여타의 사역과 균형을 이루어 지금은 5개의 소그룹만을 인도하고 있다. 이 또한 여타의 목회자들에 비하면 열정이 놀라울 정도이다. 김 목사는 성도들에게 예배 중심적인 삶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삶 속에서의 예배를 강조한다. 또한 온누리교회의 새벽기도회는 말씀중심의 기도회로 유명하다. 초기부터 1, 2부로 진행되는 새벽기도회는 침저한 강해 설교로 진행된다. 아울러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대예배 수준으로 영감 있는 기도회로 진행된다. 김 목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새벽을 사랑하며, 새벽을 잘 활용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다.



김 목사는 사역에 대한 아쉬움으로 심방의 문제를 언급한다. 제자훈련과 소그룹 사역을 중시하다보니 심방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목사의 행복은 잘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한다는 사실이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심방과 상담 사역을 어떤 타교회의 전임 사역자들보다도 훌륭히 해내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왕성한 평신도 사역은 그 외에도 다양하다. 주간에 이루어지는 무료 급식팀 사역을 비롯해서 도배사역팀, 의료사역팀, 호스피스봉사, 교도소 방문 등 10여개의 주간 봉사팀이 활동하고 있다. 이 또한 온누리교회의 자랑이다.

새로운 꿈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강남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창립 12주년을 맞아 무언고 시골교회의 증축을 도운바 있는 온누리교회는 더욱 의욕에 넘치게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김 목사와 제직들의 꿈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결실을 맺어온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보다 넓고 강력하게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 특히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에 대한 교회의 기대와 애정은 남다르다. 이러한 관심은 젊은이 사역의 풍성함으로 이어지는데 대학부와 직청부는 200여명을 헤아린다. 엄기홍 목사를 비롯해서 추요환 목사, 국명환 교육목사와 최용배 전도사, 한제남, 윤춘선 간사 등이 훌륭한 팀웍을 이루어 교육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아울러 오랜 시간동안 동역하였던 박상배 선교사(인도네시아 선교)가 안식년차 귀국한 것을 기점으로 교회 안 님성들을 선교 동역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 목사는 선교목사로도 불린다. 춘천에서 시작되어 국제적인 네트웍을 가지고 예수제자운동(대표:윤태호 목사)의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김 목사는 선교사들의 삶과 열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김 목사는 춘천의 교회들이 선교단체의 사역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끝으로 김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제직들과 교우들의 헌신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한다. 선교 중심적 교회로 지금껏 나아오다 보니 교회 내 성도들의 편의시설이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협소한 예배실의 문제로 99%의 교우들이 예배당 건축을 소망하고 있지만(교회내 여론조사 데이타) 우선순위의 문제로 교회건축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미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불편함을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참아내며,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제직들과 교우들의 헌신에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고 김 목사는 말한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외유내강(外柔內剛)의 교회, 강한 군사로 하나님나라에 큰 몫을 감당해 가는 온누리교회에 찬사를 보낸다.

[☎256-2161, 253-4188 / www.onnun21.org /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일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지현집사 (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언어로 / GBT춘천지부

GLOBAL BIBLE TRANSLATORS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전 세계 언어이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6,900여개의 언어종족 중 2,700여개의 언어종족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한번도 자기 말로 된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주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한 미전도종족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1984년 설립된 성경번역선교회(GBT, Global Bible Translators)는 이처럼 아직도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2,700개 언어 종족을 찾아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세계 성경번역선교회(WBT)와 협약을 맺어 1400여명의 회원 선교사와 500여명의 협력 선교사가 전 세계 300여개 나라에서 활약중이다. WBT는 현대 개신교 선교운동의 제3차기인 '미전도종족 선교'를 주도했던 기메본 타운센드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초교파 선교단체로는 가장 큰 규모인 6,000여명의 사역자가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현재의 성경번역 진행속도대로라면 나머지 2,700여개 종족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150년이 걸린다. 이 기간을 앞당겨 적어도 앞으로 20년 뒤인 2025년까지는 나머지 2,700 미전도종족의 언어로 성경번역 사역이 시작되게 하자는 취지의 선언문을 WBT국제총회에서 발표했는데 이것이 Vision2025이다. 이 일은 힘들어 보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꿈도 아니며 세계 교회가 이 과업을 감당할 만한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과업 완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교회의 인식과 헌신여부이다. 아직도 자기 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없어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미전도종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는 일의 중요성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이 목표는 더 빨리 완수될 것이다.

이 일들에 동참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GBT춘천지부대표: 권기찬 목사)가 설립되었다. 현재 춘천지부는 3가정의 협력 선교사와 춘천 9개 교회의 이사회, 1명의 단기선교사와 협력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역교회의 동참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GBT춘천지부의 선교훈련 프로그램은 매학기 개설되는 성경번역선교 오리엔테이션인 위클리프스쿨(가을학기 9월 12일 개강)이 있고, 그밖에 매월 정기기도회와 정기이사회, 선교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경번역선교사역에는 번역선교사 이외에도 문맹퇴치, 문화인류학, 학술자문, 지역사회개발(CDS), 비인쇄 미디어사역(VMS), 컴퓨터, 항공사, 인쇄출판, 의사, 회계, 언어종족조사, 건축, 음악, 미술, 선교사자녀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역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떠한 달란트라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종족이 자신의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 한사람의 소중한 믿음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글 김대원 간사 011-367-6065 www.GBT.or.kr / GBT춘천지부: 033)252-3927, 033@gbt.or.kr]

영혼의 양식

잠깐 쉬어라 [막 6 : 30 - 33]



김 지 한 목사 (신사우동 교회)

운동에 쉼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주자는 체력의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성악가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적당한 곳에 있는 쉼표는 음률만큼 중요합니다. 쉼표는 음악적 조화를 위해 꼭 있어야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쉼표는 음표를 가장 아름답게 해 주는 존재입니다. 치열한 인생 연주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특히 '속도가 가치를 창조한다'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여백을 찾는 여유가 더욱 필요합니다.

본문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음식을 먹을 틈도 없을 정도로 바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쉬어라"는 이 말씀은 지친 제자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예수님의 자상한 사랑을 느끼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1. 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의 쉼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잠을 적절하게 잔다는 것은 활기찬 삶을 위해서,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병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과 육체는 건강할 때는 함께 건강하고 약해질 때는 함께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쇠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휴식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2. 쉼은 일하기 위한 재충전의 기회입니다.

두 명의 나무꾼이 하루 종일 장작 패는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하면서 조금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무꾼은 50분 동안은 일을 하고 10분 동안은 쉬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 쉬지 않고 일을 한 나무꾼이 자기 장작더미보다 쉬면서 일을 한 나무꾼의 장작더미가 훨씬 더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한 첫 번째 나무꾼이 물었습니다. "나는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러자 50분 일을 하고 10분 쉰 나무꾼이 말했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나는 쉬고 있을 때 도끼날을 갈았다네." 이 이야기는 쉼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 칠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세상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는 것입니다. 쉬고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라고 하시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라는 명령이고,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것은 또한 쉬라는 명령입니다.

3. 좋은 휴식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휴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좋은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쉼은 단지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쉬어야 합니다. 영혼이 쉰다는 것은 영혼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춘천명물 닭갈비막국수

◆ 춘천명물 숯불닭갈비 메뉴 ◆
숯불닭갈비 감자옹심이
숯불돼지갈비 묵 사 발
양념삼겹살 영양상계탕



◆ 춘천명물닭갈비막국수 메뉴 ◆
불없는 닭갈비 감 자 전
정 반 막 국 수 공기밥
막 국 수 사 리

TEL033)252-4777
www.comm.co.kr
raiselee@hanmail.net
본관:033)257-3069
별관:033)255-2069
팩스:033)252-2069

◀ 대형주차장 좌석 250석 어린이놀이터 삼천동 중도관광지 입구사거리 ▶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1단계 1기모집)'

'영어회화 가격이 달라진다' '여러 훈련 수료자들이 참증을 하고 있다'

※ 새로운 의소식 : 성원과 관심에 대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트로 단계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입소문을 통해 1기 훈련의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1. 개 강 일 : 8월 29일(월) 오후 6시50분(시간엄수)
2. 기 간 : 8월 29일(월) - 9월 6일(월) (매주 월,화 목,금 오후 7시~10시까지)
   1일 3시간씩 1개월(16일간 총48시간) 학습 및 훈련
3. 훈련단계 : 1단계(초급) 교재-「new interchange 1」- 캠브리지 대학출판사-
4. 장 소 : 꿈이 있는 교회(교통편 : 카톨 25번, 23번, 26번 버스)
5. 훈련대상 : ① 본 훈련원 인트로단계를 수료한 자.
   ② 고등이상 학력자 이거나 이에 준하는 영어 실력을 가진 자.
   (2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본 훈련원과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6. 훈련등록 : 반드시 8월 22일(월)까지 등록신청(교재구입 및 사전준비 관계상 엄수)완료.
   선착순 42명 (TEL.264-0691 C.P 011-386-6239, 016-236-0688)

※ 참 조 : 훈련생 소감문이 '춘천 중앙감리교회 홈페이지(http://www.ccceh.c.com)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참조하세요.

- 꿈이 있는 선교언어 훈련원 -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한 해의 전반기를 돌면서 한적한 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론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론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기를 살피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으로 마음의 도장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새긴 것을 다시 각성시키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린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QT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시작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거룩하게 여기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보이주시는 죄들을 자백하므로 깨끗하게 하시는 교제를 하며, 은혜의 영을 감사하기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고 위로를 받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런 빛 비췸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교제의 시간이 끝난 뒤 성경을 탐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시간을 또한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을 때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지각을 열어 주시어 깨닫게 하신다. 이 달콤한 시간을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서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먼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식구들과 주님 안에서 대화를 하여 사랑과 선행에 이르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올 때 이웃에게 선한 일을 힘써야 함을 마음에 품고 말이다. 그리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가지라.

휴가의 시간이 짧은 이들을 위해 춘천의 자연휴양림을, 여유가 있는 이들을 위해 강릉의 자연휴양림을 소개한다. 이번 휴가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유익한 여름이 되길 기원한다. [편집부 이영규]

▶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서 서쪽으로 화학산 자락에 위치한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720ha면적에 8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느낄 수 있다.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해발 400m의 깊은 계곡에 위치하여 울창한 천연 수림이 잘 조성되어 있어 계절을 잊을 정도로 주변의 여건이 좋다. 숲 속의 집 39개동, 물놀이장 2개소, 취사장 3개소, 등산로(8km), 야영장 3개소, 주차장 2개소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춘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찾아가는 길은 춘천에서 호반을 따라 춘천댐에서 지암리를 경유하면 된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산 5 ☎ (033) 243-1442~3]

▶ 대관령 자연휴양림



영동과 영서지방을 가르는 분수령인 대관령 정상에서 동쪽으로 바라보면 강릉시와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발아래는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융단처럼 펼쳐지는데, 이 속에 대관령 자연휴양림이 있다.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1, 산2-1 ☎ (033) 641-9990]

잘 포장된 고갯길을 넘다 보면 드문드문 옛길이 눈에 띄는데, 그 대관령 옛길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제왕산 북쪽 기슭, 강릉시민들이 즐겨 찾는 삼포암유원지 바로 위에 조성되었다. 대관령 산림은 태고의 웅장함을 그대로 갖춘 우리나라 제일의 숲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숲이 조화를 이루어 가족단위 휴식 및 산림욕을 즐기기에 최적의 휴식 공간이다. 강릉시가 가까워서 이곳을 거점으로 경포대와 바다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 맑은 날이면 집은 야경이 휘황찬란하다. 휴양림은 2지구로 나뉘는데, 왼쪽 계곡에는 단체를 위한 수련장 시설이, 오른쪽 계곡에는 가족단위 위락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찾아가는 길은

- 강릉 ↔ 어흘리 – 강릉에서 시내버스 20분 간격 운행(25번 시내버스)
- 도로안내 : 횡계 톨게이트를 나와 옛 고속도로로 대관령 정상에서 강릉 쪽으로 약 6km 정도 내려가면 첫 버스정류장(강릉 시내버스 어흘리 종점, 강릉에서는 14km)이 나타난다. 여기서 2km 정도 들어가면 기도원을 지나 휴양림에 닿는다.
- 강릉 톨게이트를 나와 바로 나오는 우측 신선으로 나아가 대관령 쪽으로 약간만 올라가면 이정표가 나온다.





예 향

아버지 다리

파리의 변두리 뒷골목 어름한 아파트 4층에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 4명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홀아비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녁 식사를 이어 들겁게 TV시청을 마친 가족들에게 화재(火災)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큰 불이 난 것입니다. 복도 쪽을 나가보니 연기가 자욱하고 도대체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한 것은 빈민가 아파트라 업 층의 아파트와 거의 마주해 있었습니다. 자기혼자라면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로 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건너뛰기에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멀을 뛴어서 옆 동 아파트 베란다를 잡고 다리를 지기 집 아파트 창문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를 밟고 한명씩 건너라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건넜습니다. 이제 막내를 건너보낸 이 남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넌 막내가 베란다를 내려서는 순간 그 손간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써버리고 자기는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내용은 [아버지 다리]라는 제목으로 파리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명함,스티커,전단지,포스터,카다로그,서류봉투,서식
행사용 단체복 유니폼 단체T, 현수막,실사현수막 , 판촉물, 행사 기념품
Design Top Pia 종합광고 기획사
디티피아
대표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TEL : (033) 263-5152
E-mail : chsch1784@yahoo.co.kr FAX : (033) 242-5121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 향기를!!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치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 포 / 토 / 에 / 세 / 이 /

로뎀나무 그늘 아래



로뎀나무 그늘 아래
선지자가 잠들었을 때
인생은 너나없이 가련하고 슬픈 것
자신도 역조와 다름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확인했었네.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숨 바쳐 충성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삶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감쌀 때
사방에 어두움이 내리고
선지자는 잠이 들었다.
때로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때로는 사자처럼 포효하지만
언제나 은밀한 음성 들려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땅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네
무엇하며 어떻게 살더라도
세상은 점볼이고 살만한 곳이 아닌 것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네

시. 서규 환 목사 (춘천명성성결교회)

열린광장

두란노어머니학교 춘천1기 개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31:28-30)"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춘천에서 어머지학교에 이어 어머니학교를 개설하게 되었다. 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인 여성상을 제시하여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배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녀를 잘 양육하여 기정을 세우며 궁극적으로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하고자 한다.

춘천 어머니학교는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진행하게 된다. 앞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춘천의 어머니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춘천의 많은 어머니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회숙 011-363-0926 / 민병임 018-325-1968
회비 : 10만원]

행사안내

▣ 청소년 캠프 ▣
일 시 : 2005년 8월 10일(수) ~ 12일(금)
장 소 :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참석예상인원 : 등록청소년 30명
주요내용 : 집단 활동, 레크리에이션, 체육대회 및 해양 활동 특강, 캠프화이어 및 촛불의식, 담력훈련 등

▣ 아동권리캠프 ▣
일 시 : 2005년 8월 11일(목) ~ 12일(금)
장 소 : 양지 파인리조트
주 제 :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참석예상인원 : 아동권리위원회원 15명
주요내용 : 공동체 훈련, 권리활동, 리더쉽훈련, 회장단선출, 아동권리 세레모니, 놀이(수영/봅슬레이더/허브비누만들기)

▣ 아동캠프 ▣
일 시 : 2005년 8월 18일(목) ~ 20일(토)
장 소 : 동해시 청소년수련관
주 제 : 권리를 찾아 떠나는 대모험
참석예상인원 : 등록아동 50명, 일반아동 20명
주요내용 : 집단 활동, 레크리에이션, 체육대회 및 해양 활동 특강, 캠프화이어 및 촛불의식, 담력훈련 등

▣ 제12회 춘천어린이 연합찬양축제 개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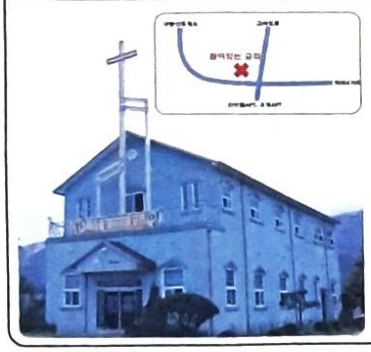
춘천지역 각 교회의 어린이성가대 및 찬양대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어린이성가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일 시 : 2005년 9월 3일(토) 오후 4시
2. 장 소 : 석사감리교회
3. 주 최 : 춘천기독교연합회,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4. 주 관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5. 프로그램 내용
   제1부 - 개회식
   제2부 - 찬양축제
   제3부 - 연합성가
6. 문 의 : 254-7244

※ 축제에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시랑에 빚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강원 춘천시 효자1동 373-90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00022-01-001222
예금주 월드비전

교회의 새주인을 찾습니다.



• 이 유
꿈이있는 교회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춘천 G5계획에 따른 '미래형 신도시' 지역으로 장해점에 따라 교회 시장성 부득불 교회를 매각하고 시내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 매입주천 교회
중소형 교회로서 앞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신도시 지역에서 목회를 힘있게 하기를 원하는 교회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위 치
동내면 고은리 캠버리 큰 도로변, 중앙고속도로 입구 대지 352평, 건평 148평, •도시계획에 따라 현 지역이 초민간에 '거래 제한(허가) 구역'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이 있는 교회는 속히 연결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친회 주시면 지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033)264-0691 011-386-6239

청정지연
▶건강청국은 독일에서 분자생물학 박사를 받은 박건구 박사가 인체에 가장 유용한 균주를 엄선하여 배양한 나또균을 주 재료로 하여 조제한 청국가루.
▶나또균 외에 비타민C, 타우린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
▶장을 튼튼하게해며-피로회복-피부미용, 혈압강하, 혈당강하 등 여러가지 효과!
▶우유나 요구르트에도 섞어 복용가능
• 연락처 : 010-4526-6423
유통분석의 선두 기업
[주]파마코제네칩스
WWW.PAMAS.CO.KR

♡ 교경협의회 월례회



춘천강합서교경협의회는 지난 7월 6일(수) 오전 11시 강촌감리교회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약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 김혜영 목사(중앙장로교회)가 사회, 한주식 장로(광장감리교회)가 기도, "나는 증입니다"란 주제로 김성호 목사(강촌감리교회)가 설교를, 경목실장 김유식 목사(한신장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교경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친목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특별히 이날 서울기독대학 학생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새롭게 하소서' 등 워십댄스를 선보였다.

♡ 제25회 성결교 강원서지방 남전도회와 장로회 연합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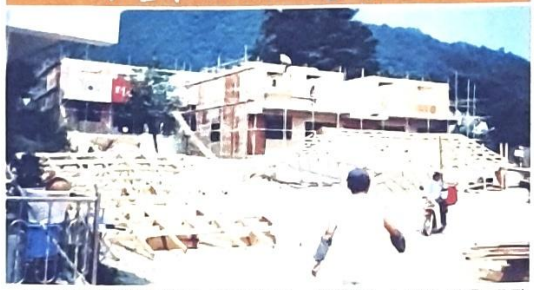
지난 7월 7일, 8일(금) 홍천수양관에서는 이를간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강원서지방 남전도회와 장로회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주제로 연합수련회를 열었다. 이날 10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류현구 안수집사가 진행을, 삼보교회 박창은 목사가 조찬간증을, 만리현교회 이형로 목사가 특강을, 지방회장 신완식 목사(원주 가현교회)가 설교를 하였다. 그 외 체육행사(민속놀이, 체조, 족구, 단체줄넘기, 탁구 등)와 찬양 축제(섬김이벤트 곽호근 집사 진행), 그리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지방회 내의 남전도회, 장로회원들 간의 친교와 심신을 수련하고, 교단창립 100주년 준비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 인도 비하르 선교 연합예배



인도 비하르 선교협의회는 7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춘천동부교회에서 인도 비하르 선교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피종호 목사(나눔교회)의 사회, 조영춘 목사(예광교회)의 기도, 수바쉬 사무엘 목사(인도 벧엘교회협의회)가 축사를, 가나안농군학교 김범일 장로가 "복음의 증인이 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특별순서로는 서울 염광교회 청년들과 춘천선교학교 팀이 워십댄스 공연을 하였으며 최현묵 목사(남춘천교회)가 헌금 특송을, 지용찬 목사(은혜교회)가 헌금기도를, 그리고 임신영 목사(동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 춘천지회는 '2005년 소망의 마을 집짓기' 공사를 지난 5월 13일에 시작하여 6월 4일 소망의 마을 진입로 공사를 착공하였고, 7월 현재까지 연인원 1,018명의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수고와 사랑의 땀을 흘리며 체험을 하고 다녀갔다. (주)이랜드는 금년에 들어서 연인원 208명이 참석하였고, 7월 18일에는 임원진과 회사원이 더불어 75여명이 참여하여 사랑을 나누고 돌아갔다.

작년에 8세대가 입주한데 이어 금년도에도 8세대가 입주하게 될 소망의 마을 주택은 8월 1일(월)부터 일주일간 시작되는 2005년 번개건축 행사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내부정리를 끝낸 후, 9월 초까지 완공하여 추석명절 이전에 입주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집 없는 불편한 이웃에게 기쁨과 소망이 전해지길 소망한다.

♡ 강원도민 아주 특별한 사랑나누기 '제5회 나눔만찬'



지난 7월 8일(금) 오후 6시 30분 춘천 베이스관광호텔 소양홀에서는 강원도민일보사와 원드비전 강원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도, 도교육청 등이 후원한 '강원도민 아주 특별한 사랑나누기 제5회 나눔만찬'이 열렸다. CBS춘천방송 고갑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에는 안형순 강원도민일보사장이 개회사를, 이성준 원드비전 선교센터장이 환영사를, 김진선 도지사가 격려사를, 허천 국회의원이 축사를, 진찬환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인사말을 하였다. 이명신 강원지부장은 원드비전 활동을 영상물을 통해 보고했으며, 원드비전 춘천어린이집 원아들의 공연과 직원들의 합창 후 박상호 목사(춘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의 축도로 기념식을 마쳤다. 또 최현섭 강원대 총장, 유종수 춘천시장,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 전상호 강원농협본부장, 김동자 도이성단체협의회장 등 각 기관단체장 및 교육여성 종교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도내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사랑의 도시락을 먹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소중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사랑의 기금을 모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사와 원드비전 강원지부는 올들어 사랑나누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 1억42900여만원 중 도내 저소득 가정 및 원아 교육비 지원기금으로 도에 730만원을,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및 저소득 학생 장학금 등으로 3840만원을 도교육청에 각각 기탁했다. 또 쓰나미 피해지역에 4800만원을, 방글라데시 등 제3세계에 4800여 만원을 전달했다.

♡ 새순교회 새 성전헌당 감사 및 임직감사 예배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의 새순성결교회는 지난 7월 17일(주일) 오후 4시 30분 새 성전헌당 감사예배 및 임직감사 예배를 드렸다. 김헌곤 담임목사의 집례로 드려진 이날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안보욱 장로가 기도를, 지방회서기 김영희 목사가 성경봉독을, 지방회장 신완식 목사가 '모리아 제단'을 주제로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유동신 목사와 이원호 목사는 신임 임직자들과 교회에 게 권면의 말씀을, 백승대 목사와 최석원 목사는 격려사를, 김기찬 목사와 장 환 목사는 축사를 하였으며 윤철중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2명의 장로와 11명의 권사, 그리고 6명의 안수집사가 임직을 하였다.

♡ 종합 선교 사무실 개소식



지난 7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에서는 종합 선교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다. 이영길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의 기도, 조은제 목사(베드로선교센터)와 MP학교 민경원 박사, GMP서울지부 대표 김태욱 목사와 인도 비하르선교협의회장 김종호 목사는 각각의 선교회의 현 위치와 사역을 소개하였고, 인도 비하르 벧엘교회협의회 대표 수바쉬 사무엘 목사와 에수전도단 인도비전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원정하 형제, 국제예수가족과 한기총통일선교대학 허문영 박사는 선교전략과 선교의 향후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하였다. 앞으로 베드로선교센터 내에 위치하는 종합선교회는 세계선교연구원, 춘천선교학교, 비하르선교협의회, 문맹지교육선교회, 한국예외선교회 개척선교부와 함께 네트워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게 된다.

♡ 장로회 전국연합회 '제41회 여름수련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1회 여름수련회가가 지난 7월 7일(목)부터 9일(토)까지 2박 3일간 홍천 대명콘도에서 열렸다. '건강하고 희망주는 장로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10개 연회의 장로연합회가 참여하여 가정에서 경건생활과 교회에서 예배생활, 사회에서 봉사생활이라는 소주제로 영적 재무장을 통한 건강하고 희망주는 감리교회 건설을 목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삼복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맛음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새 순 교 회



담임목사 김 헌 곤

· 성령 충만
· 섬김
· 재생산
· 선교와 바른 삶
· 성시화와 북한선교에 힘쓰는 교회

200-18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50 ☎033-264-0291 FAX 264-0297

광 고

사 설



행복발전소 우리교회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7, 8월이면 대다수의 교회가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한다. 내가 섬기는 교회도 "행복한 교회 만들기"라는 총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를 방금 마쳤다.

근간 세계적 상황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스러운 외침들이 사방에서 들려온다. 그리고 테러사건들은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그리고 동료들을 향한 총기 난사 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근무자 무기 탈취 사건이 발생했고, 어떤 사건의 희생감에 짓눌려 자살한 이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한지를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행복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교회들이 부끄러운 내분을 일으킬 일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성도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참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겠다.

근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사회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기독교계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교회가 할 일이 더욱 크고 많아졌으며 성도들이 할 일도 크고 많아졌다.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영혼, 생각, 양심, 감정, 영감이 우리 삶의 건강과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지만 신앙의 건강과 행복을 느끼거나 전달하는 정도는 서로 다르다.

교회 안에서의 충돌을 피하자.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 안에서의 충돌은 행복을 깨뜨린다. 바로 그 때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를 의미 있게 부르자. 성도라면 누구든 함께 행복을 느끼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뉴스 엔조이나 기타 교계 인터넷에 들어가 보라. 그리스도인인지, 비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은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초 신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흔들어 놓는다.

우리는 각각 섬기는 교회들로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자.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든, 한 덩이의 석탄이 되든, 나 자신이 소모품처럼 쓰여 질지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들로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자. 그렇게 하면 성시화는 자연스럽게 앞당겨진다.

8월은 뒤 늦게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는 곳도 있겠고 대다수가 휴가를 즐길 것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입감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분명 행복 발전소이다. 그리고 가정마다 행복을 전달할 것이다.

❀ 알려드려요

◆예수사람운동
1) '예수캠프''
*1차 예수캠프: 8월 1~3일
*2차 예수캠프: 8월 4~6일
*장소: 회천반석수양관
*주제: 예수님의 임두제자
*강사: 1차 한 균목사, 백종윤목사, 2차 이장호목사, 이원호목사
문의: 244-5400/018-305-5171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HCCC 전국 청소년 여름수련회'
주제 : 예수의 심장으로 십대를 향하여
일시 : 8월 3일(수) ~ 6일(토)
장소 :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 연락처 : 021395-3260
2) '순장수련회'
일시: 8월 16일(화) ~ 19일(금)
장소 : 동해 세묵호교회 문의: 254-5776

◆예수전도단
1) 예수전도단 춘천 학교모임
춘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동부장로교회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선교대회 'Open 2005'
일시: 8월 16일(화)~19일(금)
대상 : 선교 관심자, 교역자 및 일반
인원: 2000명 선착순 마감
문의: 02-3142-1061-2, 3142-1205-6

◆JDM
1) 세계선교대회(MISSION '05)
일시 : 8월 1일(월) ~ 6일(토) 장소 : 강원대학교
2) '선교사 수양회'
일시 : 8월 8일(월) ~ 13일(토) 장소 : 세계제자훈련원(WDTI)
3) '개 강 LTC'
일시 : 8월 24일(수) ~ 27일(토)
문의 : 252-3192 / 011-9068-3192

◆IVF
1) '지방사역협의회'
일시: 8월 11일(목) ~ 13일(토) 장소: 춘천 IVF 회관
2) '강원대 사역협의회'
일시: 8월 24일(수) ~ 27일(토) 장소: 춘천 IVF 회관
3) '한림대 사역협의회
일시: 8월 22일(월) ~ 27일(토) 장소: 아바공동체
4) '교육대 사역협의회'
일시: 8월 17일(수) ~ 19일(금) 장소: 춘천 IVF 회관
5) '전문대 사역협의회'
일시: 8월 22일(월) ~ 24일(수) 장소: 춘천 IVF 회관
문의: 252-5200

◆어린이 전도협회
1) 'TCE 교사대학 1단계'
일시: 8월 22일(월)~27일(토)
선착순 40명 / 80,000(중식, 간식, 교재 포함)
2) '가을학기 새소식반 주간 강습회'
일시: 8월 29일(월) ~ 11월 14일(월)
등록비 30,000원(12주간 특강교재, 간식 포함)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

◆GBT
1) '위클리프스쿨 리더교육'
일시 : 8월 16일(화)~18일(목) 장소 : 서울 송파제일교회
2) '아첨학 아시아선어문화연구소 창립모임'
일시 : 8월 18일(목) 장소 : 서울 사랑의 교회
3) '춘천지부 기도회'
일시 : 8월 22일(월) 저녁 7시 장소 : 예담교회
문의 : 김대원 간사 011-367-6085

◆에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번개건축'
일시: 8월 1일(월) ~ 6일(토) 문의: 254-0009
장소: 춘천 신북읍 4리 162-1 (상천초교 뒤)

◆강원 백두대간 햇볕기도회
일시 : 8월 28일(주일) 오후 2시 장소 : 호반체육관
문의 : 256-1260 / 011-367-3454

◆ 8 · 15 광복절 연합 예배
일시 : 8월 14일(주일) 오후7시30분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강사 : 김동원 목사 (기독교장로회 총회장)

◆ MPS 9기개강
일시 : 9월 3일(토) 오후 3시 오리엔테이션
9월 10일부터 12월 3일 까지 (매주 토요일)
장소 : 베드로신교센터 5층 주수원
문의 : 이수란 간사 019-9903-1148

춘천기독교연합회 후원자명단

춘천광명장로교회	춘천공염감리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춘천감리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성결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성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신사우동장로교회	신성감리교회	임신장로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평화감리교회	후평장로교회	

<성시신문 후원자를 찾습니다>

후원계좌 :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우체국 200002-02-12974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남춘천감리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니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예담교회	임신교회	주천앙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동부장로교회	춘천성결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한빛장로교회	현일현수막	헤비타트(춘천지회)
의암기도원	엔루어	유림닭갈비
초인테리어	디티피아	농협선교회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협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렬
안 미 애	안 점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용 규	이 원 기
이 판 호	이 학 규	유 근 창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대한예수교 장로회 춘천중부교회



담임목사 김 덕 용

사명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비전 : 백. 천. 만 세계 비전
핵심가치 : V I P 영혼 구원

200-957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301-11 ☎ 033)252-3616
WWW.jb.or.kr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로교회



구) 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송 성 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
훈련과 꿈터를 통해 사람을 세우는 교회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18-4 (퇴계주공 4단지앞 D.C할인마트 2층)
☎ 033-263-8291, 011-776-9892 www.hanaroch.co.kr